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2호 [루게 제23164호] 주체99(2010)년 7월 31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을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는 자강도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첨단을 향하여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고 있는 자강도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박도춘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홍석형동지, 태종수동지, 제1부부장들인 주규창동지, 리재일동지가 동행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자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기룡동지를 비롯한 도와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자강땅에 위대한 변혁의 새 역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맞이한 도내 인민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일편단심 어버이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만년시련을 헤치고 승리를 떨쳐온 자강도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시기에 발휘하였던 백철불굴의 그 정신으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하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나날들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CNC화의 본보기공장인 강계트락도르종합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생산공정의 CNC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공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임으로써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직장과 제품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선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직장마다에 출지어늘어선 CNC기술이 도입된 집재같은 대형 프레스를 비롯한 각종 기계들과 쉬임없이 쏟아지는 가공품들을 보시고 생산공정들을 CNC화하여 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



을 과감히 벌려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면시키였으며 CNC기술을 정복한 기세로 보다 높은 최첨단고지점령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이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기계제품들도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통하여 천백배로 억제어진 자강도사람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일본새, 강계정신이 낳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에서 건설한 오리목장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공장의 당조직과 일꾼들은 로동자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오리목장을 비롯한 후방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후방공급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오리목장을 실리있게 건설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

하여 로동자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있을뿐아니라 공장구내를 록음이 우거지고 온갖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리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후방사업을 면밀히 짜고두고 이완하게 노력함으로써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식생활조건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준 공장일꾼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은 현대화에서는 물론 로동자들에게 대한 후방공급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경험을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공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만든 소방기재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공장소방대의 소화훈련을 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만든 소방기재들은 성능도 좋고 리용하기도 편리한 훌륭한 장안품이라고 하시면서 소방훈련을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계트락도르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현지도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공장에 찾아오시어 주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히 벌림으로써 공장의 CNC화를 실현하여 많은 최신식기계제품들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특히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고속화, 정밀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완하게 투쟁하여 CNC기술을 모든 생산공정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계제작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비약시키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CNC공작기계들의 성능과 구조작용원리들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기계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공장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산공정이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 과학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고도로 보장된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이야말로 주체공업의 자랑스러운 면모를 과시하는 본보기공장의 하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을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는 자강도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장의 실정에 맞는 기술개건을 착실히 진행함으로써 생산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적 진보는 우리 당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파시르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을 비롯한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기계제작기계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최첨단기계들도 척척 만들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현실은 우리의 주체적기계공업이 세계첨단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는것을 용변으로 실증해주고 있다고 감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노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짧은 기간에 기술적대대를 튼튼히 육성해놓고 최첨단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기술개조사업을 하나 해도 이렇처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목표를 높이 세우고 끊임없이 전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력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자강공작기계공장에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최첨단기술에 기초한 기술개조사업에 계속 역량을 집중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밀화,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이 생산지도수준을 부단히 높여 실리주의원칙에 맞게 공장관리운영을 짜고드는 한편 노동자들의 후방공급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까운 기간에 공장이 점령해야 할 투쟁목표를 다시금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이 기계제작공업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 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언제나 마음 쓰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유연창대직기의 CNC화한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생산에서 편일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책임일꾼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속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최 첨 단 을 향 하 여 줄 달 음 치 고 있 는 자 강 도 의 여 러 공 장 들 을 현 지 지 도 하 시 었 다



2 면 에 서 계 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9월방직공장은 나라의 굴지의 천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입은 문제해결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만부하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 퍼지는 3정방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추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공장의 로동계급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당의 구호를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몇해사이에 자력

으로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림으로써 공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으며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있는것은 경탄할만 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로동계급처럼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짧은 기간에 모든 공장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부산물을

리용하여 생산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보시고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의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온 여성공로자들의 투쟁자료를 보시고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시며 로동당시대의 여성들처럼 자기의 명성과 존재가치를 눈부시게 빛내인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일어난 이 세기적전변은 혁명성과 전투성이 강한 우리의 여성들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위력한 력량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건설한 구내식당을 비롯한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로동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이

생산자들에 대한 옹바른 편점을 가지고 문화후생시설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9월방직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렬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것을 자기의 숭고한 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으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복중시켜 풀어왔다고 하시면서 입은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하시면서 천생산에 큰 힘을 넣어 입은 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9월방직공장에서 후방공급사업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당조직과 일군들이 여성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치신 후 현장에서 공장로동자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로동이 그대로 기쁘이고 노래인 자기들의 보람찬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로동자들의 격동적인 공연을 보시고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의 로동계급이 새 문화창조에서도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9월방직공장의 로동계급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질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생산공급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첨단을 돌파하고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자강도는 기술혁명과업수행에서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자강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거듭되는 현지지도를 통하여 위대한 전환을 마련해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어 따뜻한 손잡이 이끌어주시며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신 경에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열화같은 호모의 정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기여할 충성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최첨단을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는 자강도의 여러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정계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 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연방공산당 이르 푸즈코주위원회 1비서 세르게이 게오르기에비치 뎀첸코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올리는 선물이 하바롭스크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 후의 고 전 적 로 작 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 보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블 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 대한 해설 모임, 토론회, 독보회가 최근 이딸리아 헤르모, 스위스 바젤, 우간다 캄팔라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이딸리아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우간다 캄팔라 플로로고등중학교 선군정치연구소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이딸리아 헤르모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소 책임자 홀라비오 베르나리는 해설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시였다.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압살책동에 끄떡하지 않는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그이의 사상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할 때 세상에 못배길 일이 없다는 신조를 지니고계신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해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자주를 지향하는 모든 당들과 인민들이 반드시 들어읽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이다.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른 토론회에서 사회주의는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는 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은

사상사업을 놓치면 아무리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있어도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상사업의 본질과 기본임무, 원칙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적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사상에서 사는 한 퇴직장교는 자기 집에 찾온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중 세계제일의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미국의 강경책동에 초강경으로 대응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모습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북은 언제 보아도 당당하다. 북은 누구의 구속을 받거나 눈치를 봄이 없이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가 결심한대로 하는 진짜로 존엄높은 자주정치를 한다.》

세계를 좀 보라. 적지 않은 나라

본사기자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위용떨치는 자주의 강국

남조선인민들 열렬히 칭송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주시대의 조종간을 역세게 틀어쥐시고 민족 자주위업을 빛나는 승리에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하며 그이의 자주정치에 찬탄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력사의 방향타를 잡으시고 시대를 주름잡아가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자주정치외의 거장》

《이북은 자주성이 강하여 세계에 민족의 존엄을 빛내고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이북은 자주성이 강하여 세계에 민족의 존엄을 빛내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의 정치야말로 만점짜리 정치, 자주정치외의 표본》

남겨레들의 이 경탄의 목소리들은 우리 민족을 세상에 가장 존엄높고 긍지로운 민족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자주정치에 대한 찬양은 고마움과 애국에서 우러나온 심장의 웨침이다.

사상에서 사는 한 퇴직장교는 자기 집에 찾온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중 세계제일의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미국의 강경책동에 초강경으로 대응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모습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북은 언제 보아도 당당하다. 북은 누구의 구속을 받거나 눈치를 봄이 없이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가 결심한대로 하는 진짜로 존엄높은 자주정치를 한다.》

세계를 좀 보라. 적지 않은 나라

들이 지금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폭정에서 눈치를 살피며 숨도 제대로 못 쉬고있다. 자기의 독특한 로선도 없이 미국이 부르짖는 <세계화>에 휘말려들어 얼골없는 정치, 외세추종정치를 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이북은 자기의 존엄, 자기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 단 한치의 양보도 모른다. 목숨 다해 존엄을 수호하는 말그대로 존엄에 사는 나라이다. 북의 자주정치가 정말 부럽다. 북의 당당한 모습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느낀다.》

남조선의 새 력사연구회의 한 회원은 자주정치외의 화신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자주 대 반자주, 평화 대 전쟁,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와의 대결장인 조선반도에서 자주, 평화, 사회주의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것은 바로 세계자주화위업의 중심축이 북에 있음을 증시해주고 있다. 세계정치의 주도권은 명실공히 김정일장군님께서 쥐고계신다. 그분의 의지에 따라 력사가 흐르고 있다.》

만민이 김정일장군님을 세계에 보기 드문 특출한 위인, 상상할수 없는 천재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김정일장군님께서시야말로 민족존엄을 열어나가시는 자주시대의 거룩한 위인이다.》

남조선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호모와

칭송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는것은 그들이 자주권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침해하려는 세력과는 추호의 타협도 모르고 단호히 맞서싸워 언제나 승리를 이룩하시는 장군님의 천출위업적공포를 현실을 통해 느끼기때문이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이북은 언제 한번 누구의 위협이나 압력에 타협하거나 굴복해본 적이 없다. 그리 크지도 않은 이북이 엄청난 외부의 압력에서 대국들과 당당히 맞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주성을 지켜올수 있었던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어떤 광풍에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자주정치외의 힘이 강했기때문이었다.》

그러니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탓에 자기의 존엄은 고사하고 생존권마저 지키지 못하고있는 우리 이남민중이 진정한 삶의 길, 민족재생의 출로를 김정일장군님의 품에서 찾았다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 아닌가.》

이 짝막한 몇줄의 글을 통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외의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를 천출위인으로 마르고 경모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을 잘 알수 있다.

자주정치가 없는탓에 외세의 지배와 강점지에서 65년간이나 시달려오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이 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투철한 자주의 리념과 주체의 신념으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21세기 자주정치외의 거장으로 높이 칭송해마지않는것이다.

서울의 한 제약인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자주정치, 선군정치에 의하여 민족의 존엄이 세계에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은 엄청난 역경을 뚫고넘어오르도록 타개해왔다. 그 비결은 김정일령수님의 자주정치, 선군정치에 있다.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여기에 김정일령수님의 정치, 위대한 선군정치외의 매력이 있다.》

한없는 감사의 정에 눈물짓는 남조선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를 받들어 이 땅에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거यी 안아올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부산의 한 대학교수는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에 대한 확신을 담아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이남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의 자주정치를 받들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통일하여 자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평수로 높이 모시여 우리 민족은 멀지 않아 통일위업을 성취하고 세계에 빛나는 존엄높은 민족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우리모두 그날을 위해 더욱 분발하자.》

본사기자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혁명투사 최춘국동지 서거 60돐 중앙추모회가 3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추모회장정면에는 혁명승리의 표대인 붉은기가 펼쳐져있었으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추석단체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열렬충신이 되자!》, 추모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자!》라는 구호들이 추모회장에 나붙어있었다. 김영남동지, 김영춘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 김철만동지,

리을설동지와 김영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책임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추모회는 《발레산추도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추모사를 하였다. 추모회는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

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옹호보위하며 당의 명도따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수행을 힘차게 다그치나갈 참가자들의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추모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회라》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옹호보위하며 당의 명도따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수행을 힘차게 다그치나갈 참가자들의 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추모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회라》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항일선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

중앙추모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의 추모사

동지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두에서 개척되어 즐거차게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년대에게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쟁업적이 력력히 새겨져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한생을 바쳐 영웅적으로 투쟁한 혁명선열들 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끝없이 충직한 항일혁명선열들이 유능한 군사지휘관이었던 항일의 용장 최춘국동지의 모습도 빛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항일혁명투사 최춘국동지의 서거 60돐을 맞으며 그의 고귀한 투쟁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반일애국의 뜻을 품고 90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조선혁명의 전초기 개척되던 그해 가을 두만강연안의 북부유격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거점으로 꾸밀 수상을 안고서 온성일대에 진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 만나보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되었는데 최춘국동지의 생애와 혁명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피눈물나는 생활경위도 알아보시며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들을 의식화해나 한다고 따듯이 일깨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의 정과 비범한 예지에 매혹된 최춘국동지는 김일성동지시야말로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시길 민족의 태양이시라는 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을 과감히 헤쳐나간 최춘국동지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품도는 오늘날도 사령관들의 작전적수상을 훌륭히 발휘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최춘국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면서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매자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압록강연안일대와 조국으로의 진군을 개시하시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백두산사북부지대에서 편대를 이끌고 활동하고있던 최춘국동지는 적들의 대병력이 사령관들까지 인솔하신 주력부대에 쫓기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위험을 한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동무들, 목숨을 걸고 사령부를 보위합니다. 사령관들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는 우리 인민의 심장이며 모는 희망의 동대입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보다 더 귀중한 임무는 없습니다.》라고 웨치면서 사령부도 달려드는 적들을 유인소멸하기 위한 결사전으로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무비의 희생성과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백두산사북부 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작전을 벌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사령관들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남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는데서 선전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남호회의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사령관들께서 북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최춘국동지가 속한 부대를 부르시었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10여차례나 적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고 식량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들께서 밝혀주신 전술적원칙대로 부대의 집중과 분산을 옮겨 배합함으로써 적의 포위를 뚫고 부대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였으며 4개월간에 걸친 간고한 행군을 성료되도록 진행하여 끝내 사령부에 도착하였습니다. 투철한 수령님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목적으로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사령부의 사상과 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항일의 혈전만리

를 따라없이 일하였습디다.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결사관철정신을 신념화, 제도화한 최춘국동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도 전투임무수행으로 빛나인 참다운 혁명전사였습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 년 여름경에하는 최고사령관들의 작전적 지시를 지상의 임무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집행한데서도 높이 발휘되었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이 주제 22 (1933) 년 말부터 주제 23 (1934) 년초 5 000여명의 대병력과 포병, 비행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 방향에서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소양청유격구를 포위공격해왔을 때였습니다. 일제놈들의 악랄한 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을 타격하기 위한 맹렬한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수습에 달하는 적의 정예부력과 맞서 소양청유격구를 사수하여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들께서 밝혀주신대로 유인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보다 더 귀중한 임무는 없습니다.》라고 웨치면서 사령부도 달려드는 적들을 유인소멸하기 위한 결사전으로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주제 28 (1939) 년초 부대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백두산사북부 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작전을 벌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사령관들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남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는데서 선전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남호회의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사령관들께서 북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최춘국동지가 속한 부대를 부르시었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10여차례나 적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고 식량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들께서 밝혀주신 전술적원칙대로 부대의 집중과 분산을 옮겨 배합함으로써 적의 포위를 뚫고 부대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였으며 4개월간에 걸친 간고한 행군을 성료되도록 진행하여 끝내 사령부에 도착하였습니다. 투철한 수령님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목적으로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사령부의 사상과 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항일의 혈전만리

과 밤이 따로없이 일하였습디다. 수령의 명령지시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결사관철정신을 신념화, 제도화한 최춘국동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도 전투임무수행으로 빛나인 참다운 혁명전사였습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39 (1950) 년 여름경에하는 최고사령관들의 작전적 지시를 지상의 임무로,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집행한데서도 높이 발휘되었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이 주제 22 (1933) 년 말부터 주제 23 (1934) 년초 5 000여명의 대병력과 포병, 비행대의 협동작전으로 3개 방향에서 조선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소양청유격구를 포위공격해왔을 때였습니다. 일제놈들의 악랄한 기도를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놈들을 타격하기 위한 맹렬한 작전을 펼치셨습니다. 수습에 달하는 적의 정예부력과 맞서 소양청유격구를 사수하여야 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들께서 밝혀주신대로 유인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보다 더 귀중한 임무는 없습니다.》라고 웨치면서 사령부도 달려드는 적들을 유인소멸하기 위한 결사전으로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주제 28 (1939) 년초 부대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백두산사북부 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작전을 벌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사령관들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남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는데서 선전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남호회의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사령관들께서 북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최춘국동지가 속한 부대를 부르시었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10여차례나 적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고 식량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들께서 밝혀주신 전술적원칙대로 부대의 집중과 분산을 옮겨 배합함으로써 적의 포위를 뚫고 부대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였으며 4개월간에 걸친 간고한 행군을 성료되도록 진행하여 끝내 사령부에 도착하였습니다. 투철한 수령님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목적으로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사령부의 사상과 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항일의 혈전만리

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를 만들게 하시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투사의 혁명적신념과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일찍이 우리결을 떠나갔으나 항일혁명선열들의 생전의 남편대로 오늘 이 땅우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하도 밑에 조국변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습니다. 진정 혁명적동지의 위대한 화신 이신 백두산위인들의 고귀한 사랑과 신념들에 의하여 최춘국동지의 생애와 업적은 선군혁명의 자랑스런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으며 그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위훈은 강성대국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진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백두에서 이어 온 선군의 기치를 여실히 추켜들고 신념들의 피가 스민 조국공공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궁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위대한 평도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신념의 도끼를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삼고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좋은 날에 나고도 잘못을 제재하여 바로잡아온 원칙성이 강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참으로 최춘국동지는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정신에 대한 투철한 신념, 지휘성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불굴의 투쟁정신에 있어서 우리모두가 본받아야 할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도를 보여준 참다운 주체혁명의 혁명투사, 유능한 군사정치일꾼이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숭고한 존경의 리로 하여 오늘날도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충신의 모습으로 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서부터 머슴군으로, 소년로동자로서 피눈물속에 살아온 최춘국동지를 한몸에 안아 국내의 첫 당조직원으로, 혁명군대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고 언제나 극진한 정과 두리온 신임으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항일의 나날 총대로 혁명을 옹위하는 성벽이 되라고 몸소 싸움까지 한가 격정되시어 친히 말까지 보내주시였으며 투사가 가슴을 이루었을 때에는 그의 집도 찾았으며 신선부 의독창적인 정통함으로써 육친이던 언제나 싸움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원수들을 위락타락하던 최춘국동지의 군사적지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평활무쌍한 지략과 지휘능력은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높이 발휘되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들의 반공격명령을 받들고 적들에게 숨들림 틈을 주지 않고 련속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불과 한달사이에 원수와 제친, 추추를 련이 해방하였으며 한강상류부근에서는 원수전술과 후퇴전술을 배합하여 단번에 적계 사단면방향을 완전히 포위섬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으로써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해방후에도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를 과감히 헤쳐나간 최춘국동지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품도는 오늘날도 사령관들의 작전적수상을 훌륭히 발휘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최춘국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면서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매자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압록강연안일대와 조국으로의 진군을 개시하시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백두산사북부지대에서 편대를 이끌고 활동하고있던 최춘국동지는 적들의 대병력이 사령관들까지 인솔하신 주력부대에 쫓기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위험을 한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동무들, 목숨을 걸고 사령부를 보위합니다. 사령관들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는 우리 인민의 심장이며 모는 희망의 동대입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보다 더 귀중한 임무는 없습니다.》라고 웨치면서 사령부도 달려드는 적들을 유인소멸하기 위한 결사전으로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무비의 희생성과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백두산사북부 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작전을 벌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사령관들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남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는데서 선전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남호회의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사령관들께서 북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최춘국동지가 속한 부대를 부르시었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10여차례나 적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고 식량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들께서 밝혀주신 전술적원칙대로 부대의 집중과 분산을 옮겨 배합함으로써 적의 포위를 뚫고 부대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였으며 4개월간에 걸친 간고한 행군을 성료되도록 진행하여 끝내 사령부에 도착하였습니다. 투철한 수령님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목적으로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사령부의 사상과 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항일의 혈전만리

를 과감히 헤쳐나간 최춘국동지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품도는 오늘날도 사령관들의 작전적수상을 훌륭히 발휘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최춘국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면서 남김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매자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압록강연안일대와 조국으로의 진군을 개시하시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백두산사북부지대에서 편대를 이끌고 활동하고있던 최춘국동지는 적들의 대병력이 사령관들까지 인솔하신 주력부대에 쫓기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위험을 한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동무들, 목숨을 걸고 사령부를 보위합니다. 사령관들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는 우리 인민의 심장이며 모는 희망의 동대입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것보다 더 귀중한 임무는 없습니다.》라고 웨치면서 사령부도 달려드는 적들을 유인소멸하기 위한 결사전으로 편대를 이끌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무비의 희생성과 결사의 각오를 안고 백두산사북부 일대에서 맹렬한 군사작전을 벌여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였으며 사령관들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를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남선과 방침을 옹호관철하는데서 선전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력사적인 남호회의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사령관들께서 북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최춘국동지가 속한 부대를 부르시었을 때였습니다. 때로는 하루에도 10여차례나 적들과 전투를 벌여야 했고 식량마저 떨어진 상태에서 최춘국동지는 사령관들께서 밝혀주신 전술적원칙대로 부대의 집중과 분산을 옮겨 배합함으로써 적의 포위를 뚫고 부대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였으며 4개월간에 걸친 간고한 행군을 성료되도록 진행하여 끝내 사령부에 도착하였습니다. 투철한 수령님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을 목적으로 결사옹위하며 혁명의 사령부의 사상과 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어 항일의 혈전만리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를 만들게 하시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투사의 혁명적신념과 투쟁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일찍이 우리결을 떠나갔으나 항일혁명선열들의 생전의 남편대로 오늘 이 땅우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하도 밑에 조국변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습니다. 진정 혁명적동지의 위대한 화신 이신 백두산위인들의 고귀한 사랑과 신념들에 의하여 최춘국동지의 생애와 업적은 선군혁명의 자랑스런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으며 그의 고결한 혁명정신과 위훈은 강성대국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진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백두에서 이어 온 선군의 기치를 여실히 추켜들고 신념들의 피가 스민 조국공공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며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궁하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위대한 평도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신념의 도끼를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혁명선열들이 지녔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삼고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좋은 날에 나고도 잘못을 제재하여 바로잡아온 원칙성이 강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참으로 최춘국동지는 혁명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혁명정신에 대한 투철한 신념, 지휘성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불굴의 투쟁정신에 있어서 우리모두가 본받아야 할 고결한 사상정신적품도를 보여준 참다운 주체혁명의 혁명투사, 유능한 군사정치일꾼이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숭고한 존경의 리로 하여 오늘날도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충신의 모습으로 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서부터 머슴군으로, 소년로동자로서 피눈물속에 살아온 최춘국동지를 한몸에 안아 국내의 첫 당조직원으로, 혁명군대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시고 언제나 극진한 정과 두리온 신임으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항일의 나날 총대로 혁명을 옹위하는 성벽이 되라고 몸소 싸움까지 한가 격정되시어 친히 말까지 보내주시였으며 투사가 가슴을 이루었을 때에는 그의 집도 찾았으며 신선부 의독창적인 정통함으로써 육친이던 언제나 싸움에서 주도권을 틀어쥐고 원수들을 위락타락하던 최춘국동지의 군사적지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평활무쌍한 지략과 지휘능력은 특히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높이 발휘되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들의 반공격명령을 받들고 적들에게 숨들림 틈을 주지 않고 련속 섬멸적타격을 가하여 불과 한달사이에 원수와 제친, 추추를 련이 해방하였으며 한강상류부근에서는 원수전술과 후퇴전술을 배합하여 단번에 적계 사단면방향을 완전히 포위섬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임명받던 남 사령관들께서 땅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친필을 남겨주신 붉은 수첩을 소중히 품고 다니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나 속이 시라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으 며 혁명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울 굳은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정치적인업에 의하여 최춘국동지는 주제 19 (1930) 년 10월 국내의 첫 당조직을 결성하는 온성군 두루봉회의에 참가하여 당원의 고귀한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주제 21 (1932) 년 봄 반일인민유격대에 입대해 최춘국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지도밑에 분대장, 중대정치지도원을 거쳐 분대장, 독립려단 정치위원의 중책을 지니고 전투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위훈을 발휘함

수행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우리 당의 창건과 정규적혁명무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사단장으로서 최고사령관들의 전략전술적 방침을 관철하는데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침으로써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총을 잡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하게 투쟁하여온 최춘국동지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을 쳐부시는 남진의 길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주제 39 (1950) 년 7월 30일 안동해방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최춘국동지의 한생은 비록 짧았으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투사의 무비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도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귀중한 모범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최춘국동지는 투철한 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한 참다운 주체혁의 혁명가였습니다. 최춘국동지는 생애의 전기간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싸울 때에나 멀리 떨어져 활동할 때에나 변함없이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에 끝없이 충직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그의 사상정신적특질이 있습니다. 최춘국동지가 위대한 수령님께 얼마나 충직하였는가 하는것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